

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Vo1. 12. No. 1. 2001

『儒門事親』中 張子和 診療의 方法的 分析

공대중 · 박경수 · 구병수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Analysis of Zhangzihe's medical care in 「Rumenshiqin」

Dae-Jong Gong · Kyong-Su Park · Byung-Sū Gu

Dep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 Guk University, Seoul, Korea

This investigation is to make clear the feature of Zhangzihe's medical care. This investigation had used individual or mixture theory of which is Oriental medicine or Western medicine. I have come to some conclusion from the analysis of medical cases in 「Rumenshiqin」.

The conclusion is as followed :

1. Zhangzihe had recognized that the cause of disease's main factor is the internal fever from mental unrest. His such a thought is applied for all process of medical care.
2. He had emphasis on the environment of patients, social mood, individual grade and economic ability, personality and etc.
3. He had thought that the doctor should lead the patient in relationship between doctor and patient. He asked the patient for blind obelience to doctor without the patient's voluntary participation.
4. He had emphasis on the adaptation to medical circumstance.

Key word : Zhangzihe, Rumenshiqin, medical care

I. 緒論⁽¹⁾⁽²⁾⁽³⁾

張從正의 字는 子和이고, 睢洲考城人이며, 이곳은 春秋時代에 戴國이있으므로, 스스로를 戴人이라고 稱했다. 그의 生存時期는 대략 西紀 1156年~1228年으로 推定되나, 그의 生涯에 대한 史料는 매우 적어, 그에 대해 연구하는 學者는, 元

時代의 《金史》·《歸潛志》와 明時代의 《醫史》에 短篇的으로 收錄되어있는 그의 資料와 《儒門事親》에 收錄되어 있는 關聯資料를 結合하여 그의 行蹟을 推論해 나갈 뿐이다.

그의 醫術은, 스스로 예기하기를, “내가 先祖로부터 醫方을 받은지 50餘年이 되어.....”¹⁾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子和의 나이가 61歲였으므로, 子和가 10餘歲 무렵부터, 父親으로부터 醫學을 배웠고, “내가 이 病을 40~50餘年을 알고 있었는데.....

· 교신저자 : 구병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37-21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 강남한방병원
(Tel. 02-3416-9700, Fax. 02-3416-9790)

1) 「儒門事親」卷一. 四 瘧非脾寒及鬼神辯 ‘余自先祖授以醫方 至于今日 五十餘年’

.”2)라는 敍述로 미루어, 20餘歲부터 診療에 臨했음을 推測할수 있다.

《儒門事親》은 張子和의 著書로서, 總 15卷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원래 한가지는 아니었고, 10餘種의 著作을 後人이 編成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儒門事親》의 完成에는, 張子和와 더불어 醫理를 論하고 두터운 우정을 과시한 麻知機와 常仲明의 역할이 至大한 것으로 보인다.

麻知機는 이름은 九疇이고, 字가 知機로, 河北 易州人으로, 生存時期는 西紀 1174年~1232年이다. 《金史》에 의하면³⁾, 3歲에 글을 알고, 7歲에 草書로 글을 지어, 當時代에 神童이란 소리를 들었으며, 弱冠에 이미 太學에 入門하여 文名을 날렸다는 점과 張子和의 親分으로 미루어 《儒門事親》의 編纂에 一助를 했음을 미루어 알수 있다. 常仲明은 이름은 常德이고, 字가 仲明이며, 河北 鎮陽人으로, 生存時期는 알려진 바가 없다. 張子和가 그의 아들과 妻와 常仲明 本人을 治療한 因緣으로, 子和의 醫術에 魅了되어, 스스로 弟子를 自處하여 子和의 門人으로 處身을 하게 된다. 그는 子和의 熱烈한 推仰者로서 《儒門事親》의 編纂에 一助를 했음을 알수 있다.

《醫史》에 의하면, 13卷인 《治法心要》에 대해서, 子和가 基礎하여 그것을 만들었고, 知機가 潤色하고, 仲明이 남긴 바를 모아서 책이 이루어졌다고⁴⁾ 표현한 것을 보아, 《儒門事親》은 張子和 一人의 著作이 아니고, 그 編纂에 麻知機와 常仲明의 역할이 있었음을 확인할수 있다.

張子和의 醫學理論은 劉完素의 六氣致病의 理論을 따라, 各種疾病이 六淫의 邪氣에 의해서 發生한다고 認識하였다. 그러나 그 病因에 대한 시각은 劉完素의 一派로 볼수 있지만, 治療에 대해서는, 劉完素가 寒涼한 藥을 즐겨 사용하여 ‘寒涼派’로 불리는데 비해, 張子和도 물론 寒涼한 藥을 사용하지만, 특히 汗吐下 三法을 爲主로 治療를

展開하므로, 後世에 ‘攻下派’로 불려지게 된다. 金元時代 醫學理論이 《內經》과 《傷寒論》을 基礎로 하여 補完 發展하였듯이, 張子和도 《內經》과 劉完素의 醫理에 信賴를 보이는데, 특히 《內經》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崇拜를 보인다.

이러한 바탕의 《儒門事親》은 全篇에 걸쳐 張子和의 독특한 思想과 醫理가 集大成 되어있어, 그의 醫學觀을 자세히 살필수 있고, 특히 200餘個에 이르는 醫案이 收錄되어 있어, 실제 臨床書로도 그 價値가 있다고 할수 있다.

또한, 張子和는 당시에 독특한 醫學관과 汗吐下 三法을 주로 썼다는 점 때문에, 다른 醫師로부터의 無數한 批判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지만, 反面에 張子和는 當代의 名醫로 推仰을 받은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직접 治療를 받은 사람이나 그와 醫理를 주고받은 人들에 의해 그 실력을 인정받음을 봐서는, 張子和를 當代의 名醫의 盤列에 올려 놓는데 무리가 없다. 그러므로, 張子和의 思想과 診療에 비교적 詳細한 내용을 담고 있는 《儒門事親》을 醫案 중심으로 살펴, 張子和의 診療過程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本論 및 考察

《儒門事親》의 醫案들을 보면, 대략 그 構造는 導入部에 患者의 住居地와 나이등 신상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證狀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張子和의 診斷과 病情을 把握하는 過程과 治療의 順序로 되어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定型化 된 것은 아니고, 一部 醫案에서는 한두 過程이 敍述上 省略되기도 하고, 혹은 아주 單純化시켜 極度로 간단한 敍述로 이루어 지기도 한다. 그러나, 대략 診斷과 病情把握·治療·調理 및 기타로 나누어 張子和의 醫觀 및 診療의 技術과 患者에 대한 配慮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診斷 및 病情把握

診斷은 醫學의 여러 가지 基本理論을 相互 有機적으로 結合하여 病情을 把握하고 病症을 分別

2) 「儒門事親」卷七. 九十二. 偏頭痛 ‘余識此四五十年矣’
3) 「金史」 ‘三歲識字,七歲能草書作大字有及數尺者,一目爲神童.....弱冠入太學,有文名’
4) 「醫史」 ‘子和草創之 知機潤色之 而仲明又撫其遺爲治法心要’

함으로써 그에 알맞은 治療對策을 마련하는 중요한 過程이다⁴⁾. 그래서, 診斷은 곧 施行하는 醫者의 思想이 濃縮되어 있는 過程으로 볼수 있다. 《儒門事親》中에서, 張子和의 診斷을 살펴 그 特徵을 敘述한다.

1) 脈診

張子和는 診斷에 있어서 脈診을 매우 중요시한 것으로 보인다. 《儒門事親》의 대략 200餘個에 이르는 醫案중에 診脈이 記述되는 醫案은 대략 30餘個가 된다. 하지만, 약 30餘個를 除外한 나머지 醫案에는 診脈에 대한 記述이 없다고 해서, 診脈을 하지 않았다고는 말할수 없다. 張子和는 診脈을 診斷의 基本的 要素로 把握하고 있기 때문이다. 《儒門事親》내에서, 診脈의 重要性을 강조하는 부분이 많은데, 患者의 脈이나 呼吸을 살피지 않고, 經脈을 연구하지 않아, 제대로 寒熱을 診斷하지 않고 熱藥을 處方하는 것을 비판하기도 하고⁵⁾, 醫師가 脈을 보지않고 問診에만 依存하는 것을 비판하고,⁶⁾ 醫師가 脈을 보지않으면 그 根源을 밝힐수 없다고 강조한다⁷⁾. 이러한 張子和의 시각을 볼 때, 診療에 臨해서 脈診을 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할수 없다. 또한, 汗吐下 三法을 多用하는 張子和는 脈診으로 施術의 不可를 판단하기도 한다⁸⁾. 그러므로, 張子和의 醫案에서 脈診부분이 없는 것은, 診脈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省略 뿐이라는 것을 推論할수 있다.

張子和가 사용한 脈法은 양손의 寸關尺을 살피는 寸口診法을 썼다. 張子和는 醫理에 있어서, 《內經》을 매우 존중했지만, 《素問》의 三部九候法(삼부구후론)이나, 《靈樞》의 人迎氣口脈法(四時氣偏)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人迎氣口脈法은 《儒門事親》中에서 한차례 引用은 하였으나⁹⁾, 그 외에는 그러한 診法을 썼

다는 敘述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儒門事親》內에 脈에 대해서, 王叔和의 《脈經》을 引用한 句節이 몇가지가 있으나¹⁰⁾¹¹⁾, 《儒門事親》의 醫案에서, 張子和의 그것이 王叔和의 그것인지, 혹은 《難經》의 그것인지를 알수 있는 寸關尺과 臟腑의 相應 部位에 관한 敘述이 없으므로¹²⁾, 정확히 把握할 수는 없다. 하지만, 《脈經》이 이전의 《內經》·《難經》 및 扁鵲·淳于意·涪翁·張仲景 등의 脈學에 대한 獨創的 見解를 基礎로 완성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脈經》의 影響이 컸을 것이라고는 미루어 짐작할수 있다. 《儒門事親》의 本文에서 관찰하면, 張子和는 寸關尺 三部를 정확하게 臟腑에 配屬시켜 把握하기 보다는, 上中下焦로 部位別로 把握했음을 알수 있다. 寸口脈이 浮滑함을 보고 瓜蒂散으로 吐할수 있는 것을 把握하는 것이라든가¹²⁾, 寸口脈이 沈하고 伏한 것으로 胸中에 痰이 있는 것을 把握하든가¹³⁾, 右側의 尺脈으로 妊娠與否를 판단하는 것등의 例는 있으나¹⁴⁾, 左右 寸關尺 部位를 五臟六腑 各各으로 配屬시켜 把握하는 예는 보이지 않는다.

全體的으로 보면, 《儒門事親》內에는 診脈에 대해서, 《內經》, 《難經》, 《脈經》, 《傷寒論》 등에서¹⁵⁾ 폭넓은 引用을 하고 있음으로 보아, 어떤 한가지 脈法을 따르기보다는, 대체적으로 《難經》, 《脈經》의 寸口診法과 유사한 方法을 사용하며, 여러 脈法을 상황에 맞게 이용했고, 나아가 脈診에 대해서, 本人만의 독특한 이해가 있을수

5) 「儒門事親」卷一. 六. 證婦人帶下赤白錯分寒熱解 '不察病人脈息.....妄斷寒熱信用羣方暴熱之藥'
6) 「儒門事親」卷一. 十. 服藥一差轉成他病說 '醫者不察其脈 不言其始'
7) 「儒門事親」卷一. 十. 服藥一差轉成他病說 '醫者不察其脈 不究其原'
8) 「儒門事親」卷二. 十四. 凡在上者皆可吐式 '寸口脈微滑者 此可吐之'

9) 「儒門事親」卷三. 二十三. 斥十膈五噎浪分支派疏 '人迎 四盛以上爲格陽'
10) 「儒門事親」卷四. 七. 解利傷寒 '叔和云: 寸脈沈兮胸有痰'
11) 「儒門事親」卷四. 三十七. 頭痛不止 '叔和云: 寸脈急而頭痛是也'
12) 「儒門事親」卷四. 七. 解利傷寒 '寸口脈浮滑者 可用瓜蒂散吐之'
13) 「儒門事親」卷六. 八十一. 瀉兒 '兩手寸脈皆沈而伏知胸中有痰實也'
14) 「儒門事親」卷七. 一百十五. 孕作病治 '右尺洪大有力 此孕脈也'
15) 「儒門事親」卷二. 十七. 推原補法利害非輕說 '仲景.....目不欲開者是也'

있음을 推測할 수 있다.

2) 環境的 考慮

《儒門事親》에서 張子和의 診療를 보면, 患者의 病情을 把握하고 治療에 臨하는데 있어서, 四診 및 醫理 외에 患者의 背景 및 性品에 대한 많은 考慮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張子和가 生存한 時期는, 南宋과 金이 代置하는 상황이어서, 社會적으로 매우 혼란한 時期였다. 그리하여, 張子和가 診療를 한 患者도 生活環境이 多樣했음을 推測할 수 있다.

(1) 社會的 背景

張子和가 社會的 環境을 診療의 重要한 要素로 把握한 이유는, 張子和의 醫理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張子和는 病의 原因을 주로 六氣로 把握했고, 그 중에서도 火를 특히 강조하였다. 그래서, 張子和는 當時에 만연한 熱한 藥을 쓰는 風土를 聲討한 것이고, 本人도 劉河間을 따라 寒涼한 藥을 즐겨 사용한 것이다. 특히 劉河間에 대한 존경은 대단하여, 《儒門事親》의 곳곳에서, 河間의 寒涼한 處方을 칭찬하고¹⁶⁾¹⁷⁾, 그러한 寒涼한 藥을 비난하는 무리들로부터 河間의 變명을 하기까지 한다¹⁸⁾.

張子和는 세상이 고요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太平하고, 즐기며 勞役하지 않지만¹⁹⁾, 세상이 혼란하면 戰亂이 잦고, 그러다보면 凶년이 이어지고, 負役이 많아지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며, 조금도 한가할 겨를이 없으니, 內火와 外火가 같이 動하여 사람을 크게 傷한다고 생각하였다²⁰⁾²¹⁾. 그러하니, 張子和에 있어서 社會的 背景과 患者

의 身分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張子和는 어지러운 時期에, 精神的 不安으로 發生하는 內火를 매우 警戒하였다. 어지러운 時期에 內火와 外火가 같이 動할 때, 특히 高位職에서 더욱甚하다 하였으니, 心理的 內火를 病因의 큰 構成要素로 把握했음이다²²⁾. 이러한 考慮는 治療에까지 이어져, 이러한 時期에는 熱藥·毒藥의 사용을 신중히 할 것을 각별히 강조하며, 時代的 狀況을 고려하지 못하는 醫師를 꾸짖기까지 한다²³⁾.

(2) 貧富貴賤

張子和는 診療 및 治療에 있어서 患者의 貧富貴賤을 매우 중요시 하였다. 그래서, 같은 病에 있어서도 患者의 貧富貴賤에 따라 病의 機轉 및 治療를 달리 解析하였다. 富有한 사람은 起居가 便安하고, 補陽이 지나치며, 賤한 사람은 過勞와 거친음식과 추위를 이기지 못하는 얇은 옷으로 인해, 똑같은 腹脹의 證狀도 그 原因을 다르게 보았다²⁴⁾. 이러한 예는 《儒門事親》內에서, 여러 곳에서 보이는데, 가령 ‘渴’에 있어서도, 富有한 사람은 肥甘과 石藥에 의한 것이 많고, 卑賤한 사람들에게는 燥熱이 原因인 것이 많다고 하였다²⁵⁾. 또한, 瘧疾의 경우에도, 가난한 사람은 거친음식과 습게 입는 옷과 過度한 勞動으로 因한 것이므로, 그 治療에 있어서 富有한 사람의 治療와 다르게 해야함을 강조한다²⁶⁾. 또한, 기침하고 痰을 뱉는 症狀에서도, 富有한 사람은 厚味를 먹어서 생긴 痰熱로 因한 것으로 보고, 가난한 사람은 內外로 風冷寒濕을 感해서 생긴 것으로, 전혀 相反된 原因을 導出하기도 한다²⁷⁾. 이러한 張子和의 視覺은 治療에도 그대로 反映되어, 富有

16) 「儒門事親」卷一. 二. 指風痺痿厥近世差玄說「故今之劉河間.....用之者獲效者多矣」
 17) 「儒門事親」卷一. 三. 立諸時氣解利禁忌式「今代劉河間先生.....止可用劉河間辛涼之劑」
 18) 「儒門事親」卷二. 十二. 攻裏發表寒熱殊塗「今醫者不知.....以求世譽」
 19) 「儒門事親」卷一. 三. 立諸時氣解利禁忌式「天下少事之時人多靜逸樂而不勞」
 20) 「儒門事親」卷一. 三. 立諸時氣解利禁忌式「及天下多故之時.....內火又侵」
 21) 「儒門事親」卷一. 四. 瘧非脾寒及鬼神辯「蓋擾攘之時.....內火與外火俱動」

22) 「儒門事親」卷四. 四. 瘧非脾寒及鬼神辯「在侯伯官吏尤甚」
 23) 「儒門事親」卷一. 三. 立諸時氣解利禁忌式「醫者不達時變猶用辛溫 茲不近於人情也」
 24) 「儒門事親」卷四. 二十四. 酒食所傷「夫膏粱之人.....可用進食丸治之」
 25) 「儒門事親」卷三. 二十七. 三消之說當從火斷「故膏粱之人.....多燥熱之渴」
 26) 「儒門事親」卷四. 十三. 瘧「貧賤藜藿之人病瘧.....不可與膏粱之人同法而治」
 27) 「儒門事親」卷四. 三十. 一切涎嗽「夫富貴之人.....內外感風冷寒濕之致然也」

한 사람은 마음과 머리를 많이 쓰므로, 砒石같은 大毒한 藥을 삼가라고 忠告하는 등의 貴賤에 따른 治療法의 原則도 提示하며²⁸⁾, 貧富貴賤에 따라 써야 할 方劑와 써서는 안되는 方劑를 提示하기도 한다²⁹⁾. 물론, 그러한 視點은 '火'를 病因의 主要 要素로 보는 張子和의 醫理가 基底에 깔려 있음이다.

(3) 患者의 性情

張子和는 診療에 있어서 患者의 性品을 重要要素로 認識하고 있다. 《儒門事親》에서 보면, 病因에 대한 설명에서 유독 心火에 대한 言及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內經》의 '諸痛痒瘡瘍皆屬心火'란 句節³⁰⁾은 무려 12번이나 引用하여 言及하고 있다. 이러한 心火를 일으키는 原因은 단순한 臟腑의 病理外에 精神的 原因도 言及하고 있다. 그 예로, 喜·怒·悲·驚·思로 인한 疾病을 治療할때는 心火를 便安하게 하는 爲主로 해야 한다고 敍述하는 것으로 보아 그러하다³¹⁾. 특히, 患者의 성격으로 인한 行動傾向으로 미루어 그 證狀의 原因을 把握하는 것은, 既存의 五志過極으로 因한 疾病의 發顯과는 약간의 차이를 가진다. 예를들어, '消炭'에 대해서, 氣가 逆上하여 胸中에 蓄積되어, 血氣가 逆流하여 熱이 蓄積되어 發生한다는 視覺에서, 怒하여 그러한 것으로 敍述이 이루어진다면, 既存의 五志過極으로 인한 發病과 그 차이가 없으나, 《儒門事親》에서는, 性情이 強하면 자주 怒하여 그러하다 하였으니, 既存의 理論보다 한 단계 더 살핀 視覺으로 患者의 病因을 밝히므로, 張子和의 細心함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부분이다³²⁾. 이러한 배려는 治療에까지 이어져, 性格이 急하고 화를 잘내는 사람은 辛涼한 藥으로 治療하고, 溫和하고 圓滿한 사

람은 辛溫한 藥劑로 治療하는 등의 診療 全過程에서의 배려가 돋보인다³³⁾.

3) 情志過極

《儒門事親》에는 精神的 刺戟으로 發生하는 疾病에 대한 敍述이 곳곳에 보인다. 특히, 三卷의 二十六篇인 「九氣感疾更相爲治衍」에서는, 《素問》·《靈樞》의 내용을 基本으로, 여러 註解를 參照하여 그 내용을 一目瞭然하게 정리하였고, 단순한 정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土臺로 자신이 擴大한 내용을 담고 있다³⁴⁾. 그 내용은 <표.1>에 答는다. 단, 그 내용을 보면, 喜·怒·悲·恐·寒·暑·驚·思·勞를 九氣라 하여, 모두 하나의 氣가 變化한 것으로 설명을 한다³⁵⁾. 情緒인 喜怒哀恐驚思 外에, 外部的 環境인 寒暑怒를 담고 있다. 이 내용은 素問의 記述이지만, 《儒門事親》에서도 引用을 할 뿐, 별다른 意見의 改進이 없다. 이러한 視點은 '肉'과 '神'을 하나의 有機的 關係로 보는 漢醫學의 理論으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지만, 現代的 觀點으로 볼 때, 精神的 原因으로 身體疾患이 發生되는 心身症⁽⁶⁾으로 볼수 있는, 情志過極으로 因한 疾患을, 六氣 및 勞役과 같은 線上的 病因으로 解析한 것은 무리라 볼수 있다. 더욱이, 이 부분에서는 身體의 缺陷으로 인한 어느 한 情志의 두드러짐이 아니고, 疾病의 一次的 原因으로 提示했기 때문에, 그러한 分類에 더욱 疑懼心을 갖게 된다. 《儒門事親》중에는, 後術하겠지만, 精神的 障礙를 精神的 療法으로 治療한 경우가 몇군데 보인다. 張子和는 診療에 있어서, 이러한 概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具體的으로 分離하여 認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氣厥의 原因을 暴怒로 보는 것과³⁶⁾ 留飲의 原因으로 臆鬱과 思慮로 생긴다는 부분이

28) 「儒門事親」卷一. 四. 癰非脾寒及鬼神辯 '夫富貴之人.....不可驟用砒石大毒之藥'

29) 「儒門事親」卷二. 十六. 凡在下者皆可下式 '又若備急丸.....亦不死則危矣'

30) 「素問」至眞要大論

31) 「儒門事親」卷三. 二十六. 九氣感疾更相爲治衍 '故凡見喜怒哀恐驚思之證 皆以平心火爲主'

32) 「儒門事親」卷三. 二十七. 三消之說當從火斷 '剛者多怒.....故爲消瘴'

33) 「儒門事親」卷一. 三. 立諸時氣解利禁忌式 '病人稟性怒急者.....可辛溫解之'

34) 「儒門事親」卷三. 二十六. 九氣感疾更相爲治衍 '《靈樞》論.....余以是推而廣之'

35) 「儒門事親」卷三. 二十六. 九氣感疾更相爲治衍 '氣本一也.....怒喜悲恐寒暑驚思勞也'

36) 「儒門事親」卷一. 二. 指風痺痿厥近世差玄說 '暴怒而得之爲氣厥'

있고³⁷⁾, 40歲가 넘는 婦人의 下血을 悲哀太甚으로 보고³⁸⁾, 婦人이 젓이 안나오는 原因을 悲怒鬱結로 보는 부분도 있고³⁹⁾, 大悲哭으로 因해 心痛이 생긴 경우도 있고⁴⁰⁾, 驚恐이 原因이 되어 아이의 拳丸이 분고 늘어진 경우도 言及한다. 반면에, 胸中에 宿痰으로 잘 怒하게 된다는 등의⁴¹⁾ 原因과 結果가 反對인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이러한 情志過極으로 인한 疾病은 《儒門事親》의 醫案 전체 200餘個中에 이와 關聯된 醫案이 대략 10個 정도가 되니, 그 比重이 작지 않다.

-
- 37) 「儒門事親」卷三. 二十四. 飲當去水溫補轉劇論 ‘留飲.....有思慮而得者’
38) 「儒門事親」卷五. 六十二. 血崩 ‘夫婦人年及四十以上.....故經血崩下’
39) 「儒門事親」卷五. 七十二. 乳汁不下 ‘夫婦人有本生無乳者不治.....以致乳脈不行’
40) 「儒門事親」卷七. 一百. 因憂結塊 ‘息城司候.....便覺心痛’
41) 「儒門事親」卷五. 六十四. 頭風眩運 ‘喜怒 皆胸中有宿痰之使然也’

丑 1. 精神的 刺戟으로 發生하는 疾病에 대한 敘述.

	《素問》의	《靈樞》의	張子和의 推而廣之
怒	怒則氣逆 甚則嘔血及 飧泄 故氣逆上矣	盛怒者 神迷惑而不治	怒氣所至 爲嘔血 爲飧泄 爲煎 厥 ¹⁾ 爲薄厥 爲陽厥 爲胸滿脇 痛. 食則氣逆而不下 爲喘渴煩 心 爲消痺 爲肥氣 爲目暴盲、 耳暴閉、筋解 發于外爲疽癰
		腎盛怒而不止則傷志 志傷 則喜忘其前言 腰脊不可俛 仰屈伸 毛痺色夭 死于季夏.	
喜	喜則氣和志達 榮衛通 利 故氣緩矣	喜樂者 神蕩散而不藏	喜氣所至 爲笑不休 爲毛髮焦 爲內病 爲陽氣不收 甚則爲狂
		肺喜樂無極則傷魄 魄傷則 狂. 狂者意不存人 皮革焦 毛痺色夭 死于季夏	
悲	悲則心系急 肺布葉舉 而上焦不通 榮衛不散 熱氣在中 故氣消矣	悲哀動中者 竭絕而失生	悲氣所至 爲陰縮 爲筋攣 爲肌 痺 爲脈痿 男爲數洩血 女爲血 崩 爲酸 ¹⁾ 鼻辛頰 爲目昏 爲少 氣 不足以息 爲泣則臂麻
		肝悲哀動中則傷魂 魂傷則 狂忘不精 不正當人 而陰攣 筋 兩脇不舉 毛痺色夭 死 于秋	
恐	恐則精却 ¹⁾ 却則上焦 閉 閉則氣還 還則下 焦脹 故氣不行矣	恐懼者 神蕩憚而不收	恐氣所至 爲破膈脫肉 爲骨酸 痿厥 爲暴下綠水 爲面熱膚急 爲陰痿 爲懼而脫頤
		恐懼不解則傷精 精傷則骨 痿厥 精時自下	
驚	驚則心無所依 神無所 歸 慮無所定 故氣亂 矣		驚氣所至 爲潮涎 爲目瞶 爲口 吐 爲癡癎 爲不省人 爲僵仆 久則爲痛痺
思	思則心有所存 神有所 歸 正氣留而不行 故 氣結矣	怵惕思慮則傷神 神傷則恐 懼 流淫而不止	思氣所至 爲不眠 爲嗜臥 爲昏 瞶 爲中痞 三焦閉塞 爲咽噎不 利 爲臈瘰 ¹⁾ 嘔苦 爲筋痿 爲白 淫 爲得後與氣快然如衰 爲不 嗜食
		愁慮者 氣閉塞而不行	
		怵惕思慮而傷神 神傷則恐 懼自失 破膈脫肉 毛痺色夭 死于冬	
		脾憂愁而不解則傷意 意傷 則恍惚 四肢不舉 毛痺色夭 死于春	

2. 治療와 調理 및 기타

1)患者와 醫師間的 믿음

《儒門事親》의 醫案들을 보면, 약 80個의 醫案에서 張子和가 患者나 가족에게 病情이나 治療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 35個의 例에서, 治療方法을 患者나 가족에게 설명을 한다. 《儒門事親》醫案의 特性上, 생략된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그 比率은 더욱 클것으로 생각된다.

張子和가 患者 및 가족에게 患者의 상태와 治療에 대해 諒解를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現代 醫療에서도 매우 강조되는 부분으로, 1993年 3월에 宣布된 「患者權利章典」의 細部 10個 條項中에, 네 번째, ‘모든 患者는 擔當 醫療陣으로부터 자신의 疾病, 현재의 상태, 治療 계획 및 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⁴²⁾는 부분과 符合하는 것으로, 이러한 患者에 대한 배려가 現代 醫學에서도 그 淵源이 깊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張子和의 卓越한 識見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張子和는 그 時代의 潮流인 熱藥을 排除하고 寒涼한 藥을 쓴다는 점과 補法보다도 汗吐下를 중심으로 한 瀉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患者의 입장에서 거부감을 가질수도 있고, 患者 및 保護者의 충분한 諒解가 없다면, 治療의 全過程을 醫師 主導로 이끌어 갈 수 없을 것이다.

張子和의 治療법에 대한 當時 사람들의 恐怖는 《儒門事親》中에 나타나는데, 劉德源이 張子和에게 治療를 求하고는, 그 治療가 두려워 治療전날 神靈에게 비는 장면이 나온다⁴²⁾. 그 내용을 要約하면, 자신이 오랫동안 病이 낫지않아 張子和에게 治療를 구했는데, 張子和가 名醫란 것은 알고있으나, 자신의 몸이 약하여 그 治療를 견딜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當時 사람들의 寒涼한 藥과 汗吐下 三法에 대한 恐怖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張子和는 患者 및 保護者와의 交感을 重視한 것으로 보인다.

張子和는 患者와 保護者의 信任을 얻고 治療를 主導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신을 믿지 않는 보호자를 訓戒하기 위해서 보호자

의 治療 요청을 거절하다가 세 번이나 사정하자 그 治療에 臨하기도 하고⁴³⁾, 비슷한 경우로 張子和의 治療法을 의심하자 治療를 안하고, 나중에 견딜수 없는 지경이 되어 사정을 하자 治療를 하기도 한다. 또, 患者의 怪異한 證狀을 鬼神이 붙었다고 술렁이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어 진정시키기도 하고⁴⁴⁾, 또 次男을 治療하는 과정에서도, 가족이 걱정을 하자 화를 내어 동요를 진정시킨다. 또한, 張子和의 治法을 의심하는 사람에게, 친절히 설명을 하여 이해시키는 경우도 있고⁴⁵⁾⁴⁶⁾, 十五歲 가량의 處女 的 治療에서는, 그 患部가 은밀한 곳이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승낙을 받고 治療에 臨하기도 한다⁴⁷⁾. 또한, 患者의 알 권리에 反하는 行爲이기는 하지만, 張子和가 治療를 위해서 患者를 속이는 경우도 있다.

醫案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張子和 本人이 大承氣湯을 고쳐 調中湯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 生薑·大棗가 있어 補藥으로 認識하나, 사실 주된 작용은 大黃·芒硝로 이루어 지는 것을 모른다는 내용이다. 그 뒤에, 세상 인심이 補藥을 좋아하고 瀉藥을 싫어한다고 慨嘆하였으니⁴⁸⁾, 張子和가 調中湯을 쓸때는 구태여 瀉藥임을 밝히지 않고 썼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張子和 本人의 醫案인지 아닌지는 불확실하나, 散劑로 泄瀉를 시키니 患者가 두려워하여, 같은 藥을 丸으로 만들어 患者를 속여 投與하는 내용도 있다⁴⁹⁾. 하지만, 張子和의 실득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결국 張子和의 治療를 거부하여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 그 내용은 결국 張子和가 治療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儒

43) 「儒門事親」卷六. 二十. 馬刀 ‘其主母亦來告 至于再三’
44) 「儒門事親」卷六. 二十六. 腰膀痛 ‘人皆怪之 以爲有祟. 戴人大怒曰: 驢鬼也’
45) 「儒門事親」卷六. 八十. 溼嗽 ‘戴人處方六味..... 解急和經’
46) 「儒門事親」卷六. 三十七. 膏淋 ‘戴人曰: 亦可瀉. 願與君同之 母畏也’
47) 「儒門事親」卷六. 八十二. 溼癬 ‘戴人曰: 能從余言則瘥. 父母諾之’
48) 「儒門事親」卷二. 十六. 凡在下者皆可下式 ‘余嘗以大承氣改作調中湯.....’
49) 「儒門事親」卷三. 二十四. 飲當去水溫補轉劇論 ‘昔河內有人病飲.....又下十餘行’

42) 「儒門事親」卷六. 八十五. 洞泄 ‘雖已不疑 然畏其攻劑’

門事親》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張子和가 醫師와 患者간의 믿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짐작할수 있다. 그리고, 患者의 믿음을 導出해 내는 그 基底에는 張子和의 자신감이 배어있다. 자신의 醫術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자칫 위험할수도 있는 이러한 治療를 施術할수가 없다. 그 자신에 대한 대단한 自負心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現代에서 Rogers가 提示한 看護의 特性중 일관성있고(congruent), 명확하고(unambiguous), 긍정적이고, 강하고(strong), 안정적인(secure)⁵⁰⁾태도와 부합하는 것으로, 患者를 대함에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대하여, 患者로부터 믿음을 導出해 냈음을 알수 있다.

2)小兒

《儒門事親》中에는 小兒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많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그 내용이 자못 자세하여 張子和의 小兒科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읽을수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주로 貴한 집안 아이의 過剩保護의 문제점을 提示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가령, 小兒의 乳癰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두터운 옷과 乳傷에 의한 積熱로 인한 것으로 정의를 내리며⁵⁰⁾, 결과적으로 乳母의 過度한 奉養으로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⁵¹⁾.

張子和는 極端的으로, 貴하고 富有한 집안의 小兒는 夭折을 한다고 斷言을 내리기도 한다. 그 이유로는, 貴한집 아이는 제 하고 싶은대로 하므로, 怒하는 일이 많아서 肝病이 많고, 藥을 쉽게 接하므로 더욱 죽는 일이 많다고 했는데, 위에서 言及했듯이, 當時에 만연한 熱한 藥을 쓰는 風土를 張子和가 매우 聲討한 것으로 미루어, 이 경우도 熱藥의 弊端을 아울러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反面에 가난하고 賤한 집안의 小兒는 怒하는 일이 적고, 藥을 接하기 어려우므로, 衣服이나 飲食이 거칠어도 비교적 튼튼하다고 하였다⁵²⁾. 그래서, 治療에 있어서도 貧富貴賤에 차이

를 두었으니, 富有한 집안의 아이는 주로 消息하는 治療를 하여야 하고, 가난한 집안의 아이를 治療할때는 더욱 新증을 기해야 한다고 하였다⁵³⁾.

또한, 養育에 있어서도 그 기준을 提示한다. 먼저 자식을 키우는 理致 네가지를 提示하는데, 첫째가 薄衣·淡食·少慾·寡怒이고, 둘째가 藥의 사용, 특히 熱藥의 사용을⁵⁴⁾ 自制하는것이고, 셋째가 어미의 뱃속에 있을 때, 그 어미가 적당히 勞動을 하여 氣血을 充實이 할것이고, 넷째는 세 번째 조건이 만족되면, 자연스럽게 順産이 되어 小兒에게 害가 없을 것이니 滿足되는 것이다⁵⁴⁾. 現代에 있어서도, 妊娠中에는 重勞動이나 下腹部에 힘이 가는 行爲를 除外하고는, 出産前까지 家事 정도의 勞動을 權하고 있으므로⁵⁵⁾, 現代의 視覺으로 보아도 그 타당성을 인정할만하다. 그러나, 富有하고 貴한 집의 小兒는 이러한 네가지 理致에 逆行을 하여 夭折한다 하였으니, 富裕層에서 過剩保護로 인해 小兒의 外部環境에 대한 耐性を 떨어뜨리는 그 時代의 風土가 지금의 風土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다. 또한, 이러한 理致를 基本으로 張子和가 자식 키우는 法을 提示하고 있다. 아이를 寢床이 아닌 바닥에 눕히고, 옷을 얇게 입히는데, 날씨가 추워도 두꺼운 옷을 입히지 않는 것이며, 비단옷을 입히지 않고, 특히 놀이를 할때는 물동이 옆에서 소리를 마음껏 지르며 놀게 하라 하였고, 특히 여름에 그렇게 하라 하였다⁵⁵⁾. 여기서도, 張子和의 醫學觀을 엿볼수 있다. 小兒를 옷을 薄하게 입히고, 바닥에 누이는 것은, 小兒에게 耐性を 길러주려는 의도로 볼수도 있지만, 동시에 火를 피하려는 意圖도 보인다. 또한 물을 가지고 놀게 하고, 소리를 마음껏 질러서 心火를 흩으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小兒 질병의 대부분이 火邪로 因한 것

之家.....反出於富家之右'

53) 「儒門事親」卷五. 八十七. 久瀉不止 '若治菽蕘之兒 萬舉萬全 富家且宜消息'

54) 「儒門事親」卷一. 九. 過愛小兒反害小兒說 '其暗合 育子之理者有四焉.....'

55) 「儒門事親」卷一. 九. 過愛小兒反害小兒說 '余嘗授 人以養子之法.....以散諸熱'

50) 「유문사친」卷五. 八十五. 身瘦肌熱 '小兒身瘦肌熱.....太飽則必傷於腸胃'

51) 「儒門事親」卷五. 八十五. 身瘦肌熱 '皆乳母懷抱 奉養過度之罪'

52) 「儒門事親」卷一. 九. 過愛小兒反害小兒說 '蓋富貴

으로 認識했음이 확실하다. 다시 말해서 小兒를 純陽之體로 認識했음이다. 그 사실은 《儒門事親》內에서도 확인된다⁵⁶⁾. 게다가, 富貴한 집안의 小兒에게 특히, 熱이 더 致命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巴豆類의 사용에 있어서, 卑賤한 집안의 小兒보다도 富貴한 집안의 小兒를 더 염려하는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부를 그리 본 것은 아니고, 消化器가 약한 小兒의 特性도 잘 熟知하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小兒의 飽食을 警戒하기도 하고⁵⁷⁾, 위에서 言及했던 怒해서 肝病이 생기는 경우도, 결국 脾를 傷하게 된다고 敘述하고 있으며, 藥의 服用에 있어서도 같은 處方이라도 量을 調節해야 한다고 말한다⁵⁸⁾. 또한, 張子和는 妊娠中인 産母의 情緒가 出産後에도 小兒의 健康에 至大한 影響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였고, 授乳中인 産母의 情緒 또한 그러하다고 생각하였다. 小兒의 驚癇에 대해, 妊娠中인 産母의 驚·憂·悲·泣을 그 原因으로 지적한 점이 그러하고, 驚癇의 證狀이 있는 小兒의 어머니가 授乳中이면, 定志丸을 服用하게 한 점으로 미루어 그러하다. 물론, 어머니에게 定志丸을 服用시킨 것은 授乳로 藥을 小兒에게 供給하려 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小兒의 處方을 따로 주고, 또 어머니에게 處方을 提示한 것으로 보아, 張子和의 意圖는 질을 통해 小兒에게 藥을 傳達하려 한 것이 아니고, 그 어머니를 安定시키려 한 意圖임을 推測할 수 있다⁵⁹⁾.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張子和는 小兒의 疾患에 火의 作用을 매우 憂慮했지만, 眞實을 하지 않고, 病證 및 상황에 맞게 辨證施治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辨證 外에 小兒患者가 처한 環境을 잘 살펴서 診療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小兒病을 잘 治療하는 의사는 그 貧富貴賤을 살핌을 當沿視 하였다⁶⁰⁾.

56) 「儒門事親」卷一. 九. 過愛小兒反害小兒說 ‘雖衰老之人 尚猶不可 況純陽之小兒乎’
 57) 「儒門事親」卷一. 九. 過愛小兒反害小兒說 ‘嬰兒之病 傷於飽也’
 58) 「儒門事親」卷一. 九. 過愛小兒反害小兒說 ‘大人服多 小兒服少’
 59) 「儒門事親」卷五. 八十九. 發驚潮搐 ‘若食乳之子……必有諸疾’

3) 心理治療

張子和의 心理療法은 三卷의 二十六篇인 「九氣感疾更相爲治衍」에 나와있는 理論을 基本으로 한다. 그 내용을 보면, 怒로 因한 것은 悲하게 하여 治療하고, 悲로 因한 것은 喜하게 하여 治療하고, 喜로 因한 것은 恐하게 하여 治療하고, 思로 因한 것은 怒하게 하여 治療하고, 恐으로 因한 것은 思하게 하여 治療하고, 驚으로 因한 것은 刺戟을 反復적으로 주어서, 그러한 놀람에 무디게 하라는 것이다.

앞의 怒悲喜思恐의 治療는 五行의 相克을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理論으로만 提示한 것이 아니고, 張子和가 실제 臨床에서도 사용했음이 《儒門事親》의 醫案 곳곳에 나와있다. 悲結의 病이 있는 患者를 무당이나 妓生의 춤과 노래로 治療하기도 하고⁶¹⁾⁶²⁾, 憂로 病이 된 사람을 鍼으로 治療하며, 북과 피리소리를 ‘이용하기도 하는데⁶³⁾, 이 부분은 五行關係가 명확하지는 않다. 또, 思로 因해 病이 생긴 사람을 怒하게 하여 治療하기도 한다⁶⁴⁾⁶⁵⁾. 그리고, 張子和가 治療한 경우는 아니지만, 喜가 지나쳐 病이 든 者에게 마치 不治病人 것처럼 속여서, 患者를 두렵게 하여 治療하는 例도 있다⁶⁶⁾. 또한, 火病으로 자꾸 怒하는 婦人을 喜하게 하여 治療하는 경우도 보이나, 이것 또한 五行關係가 명확하지 않다. 이와같이 五行의 相克을 이용하여 治療하는 경우는, 다분히 理論적인 면이 있고, 실제 治療에 臨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張子和는 이 理論

60) 「儒門事親」卷一. 九. 過愛小兒反害小兒說 ‘然善治小兒者 當察其貧富貴賤治之’
 61) 「儒門事親」卷三. 二十六. 九氣感疾更相爲治衍 ‘余又嘗以巫羅妓抵 以治人之悲結者’
 62) 「儒門事親」卷七. 一百. 因憂結塊 ‘息城司候……適足增其痛耳’
 63) 「儒門事親」卷三. 二十六. 九氣感疾更相爲治衍 ‘余又嘗以鍼下之時便雜舞……’
 64) 「儒門事親」卷三. 二十六. 九氣感疾更相爲治衍 ‘余又嘗治一婦人……婦果呵怒是夜困睡’
 65) 「儒門事親」卷七. 一百二. 不寐 ‘一富家婦人……脈得其平’
 66) 「儒門事親」卷三. 二十六. 九氣感疾更相爲治衍 ‘又聞莊先生者……懼勝喜’

을 文句 자체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五志의 動搖가 결국 心火를 일으키므로, 治療의 窮極의 목표는 心火의 安定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⁶⁷⁾. 그러므로, 당시의 情況에 따른 張子和의 臨機應變이 돋보이는 경우라 할 수 있겠다.

驚으로 因해 病이 된 것을 비슷한 刺戟을 주어 무디게 하는 것은, 現代의 脫感作法과 類似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놀라서 恐怖症이 생긴 사람을 문과 창을 쉬지 않고 때려서 소리를 내어 治療한 경우도 있고⁶⁸⁾, 도둑을 만나 소리만 나도 놀라는 患者를 刺戟을 앞에 두고 쳐서 계속 소리를 내어 다스리는 경우도 있다. 張子和가 이러한 脫感作法을 施行한 理論의 根據는 《內經》의 ‘驚者平之’(至眞要大論)에 있는 것으로, 여기서 張子和는 日常의인 것을 ‘平’이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驚으로 病이 된 사람은 그 놀라게 하는 要素를 日常의으로 계속 대하면 그 驚이 극복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思考는 現代에 恐怖症 患者에게 施行하는 脫感作法의 基本 理論과 類似하지만, 現代의 脫感作法이 약한 단계에서 강한 단계로 매우 서서히 進行을 하는데, 특히 治療 속도의 緩急의 조절을 매우 중요시한다.

그런 관점에서 張子和의 방법은 과격한 면이 있으며, 이 점은 醫案 내용에서 過程이 생략됐는지, 혹은 敘述 그대로 강한 자극으로 施行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단지, 現在의 診療에서 이러한 張子和의 방법을 그대로 施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張子和가 治療에 있어서 患者의 心理를 巧妙히 活用한 부분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泄瀉病으로 화장실에 자주 가는 사람을, 그 사람이 좋아하는 主題로 談笑를 나누어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잊게 만들어 治療하는 경우를 인용한 것도 있고⁶⁹⁾, 또한 물을 많이 먹어야 낫는 患

者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소금에 절인 물고기를 먹여서 목이 다르게 誘導하는 경우도 있다⁷⁰⁾. 이 경우는 張子和의 細心함을 엿볼 수 있는 경우로, 張子和는 患者가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을 싫어 하였다. 그리하여, 患者가 목마를 때 물을 못 마시게 하지도 말고, 마시기 싫은 물을 억지로 먹이지도 말라 하였다⁷¹⁾. 그래서, 이와 같은 편법으로 渴症을 誘導한 것이다.

4) 呪法

呪法이란 呪文을 외우는 등 呪術的인 방법으로 疾病을 治療하는 것으로, 《儒門事親》中에서 적지않게 볼 수 있다. 小兒가 赤瘰로 疼痛이 그치지 않을 때, 呪文을 외어 그 治療를 하는데, 이 疾病이 心火에 屬한다고 治療前 밝힌 것으로 보아 그 心火를 安定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⁷²⁾. 또, 小兒가 瘡腫丹毒으로 發熱과 疼痛이 그치지 않을 때, 얼굴을 北쪽으로 향하고 눈보라와 氷山등 차가운 氣運을 상상하며 氣運을 한모금 取하고, 瘡腫이 있는 곳에 내쉬는 방법도 있다. 이 또한 疾病의 原因을 熱로 보고 取한 방법이다⁷³⁾. 그리고, 가시같은 날카로운 것에 목을 찔렀을 때는 《道藏經》을 외우는 방법으로 治療를 할 수 있다고 하고⁷⁴⁾, 全蝎에게 傷한 경우에도 주문을 외워 治療한다고 한다⁷⁵⁾. 이 경우에는 모든 毒은 火에 屬한다는 《內經》의 句節을 引用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全蝎의 毒을 火로 본 것이다. 그리고, 乳癰의 痛症도 그 起源은 心이고, 風熱이 乳房에 結한 것으로 보면서, 呪法을 提示하고 있다⁷⁶⁾. 또, 呪果法이라 하여, 瘡疾에 呪文을 외우

67) 『儒門事親』卷三. 二十六. 九氣感疾更相爲治衍 ‘謂五志所發……皆以平心火爲主’
 68) 『儒門事親』卷三. 二十六. 九氣感疾更相爲治衍 ‘余嘗擊拍門牕……魂氣飛揚者’
 69) 『儒門事親』卷三. 二十六. 九氣感疾更相爲治衍 ‘昔聞山東楊先生……’

70) 『儒門事親』卷六. 六十六. 淋 ‘戴人令頓食鹹魚……立通’
 71) 『儒門事親』卷七. 九十六. 感風寒 ‘病人若不渴 強與水飲 亦不肯飲耳’
 72) 『儒門事親』卷五. 五十一. 瘡癰瘡腫 ‘夫大人瘡癰……三唾毒腫隨手消’
 73) 『儒門事親』卷五. 五十二. 瘡腫丹毒 ‘夫大人小兒……吹在瘡腫處立止’
 74) 『儒門事親』卷五. 五十六. 魚刺麥芒 ‘夫魚刺麥芒……可用《道藏經》一呪法治之’
 75) 『儒門事親』卷五. 五十九. 禁蠟 ‘夫禁蠟有一呪法’
 76) 『儒門事親』卷五. 七十四. 乳癰 ‘夫乳癰發痛者……可用一法禁之’

고 과일에 숨을 내쉬어, 그것을 먹는 방법도提示하고77), 수숫대가 목에 걸려 상처를 입어 음식과 물을 먹지 못하는 아이를 呪法으로 治療하기도 한다78). 또한, 小兒의 癩의 治療에는 患者가 아닌 보호자가 呪文을 외우고 患部를 쓸어주게 하기도 한다79).

一見 황당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治療法에 는, 자세히 보면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呪法을 사용한 疾病이 대부분 痛症이 심한 疾患이라는 것이다. 특히 發熱과 疼痛이 兼하는 疾患들이다. 張子和는 五志가 動하면 心火가 생긴다는 思考를 가지고 있다고 上述하였다. 火熱로 因해서 疼痛이 極烈할 때, 呪法으로 患者의 五志를 安定시켜 心火를 平하게 하고, 동시에 다른 것에 신경쓰게 하므로, 患部에 덜 집중시킴으로 鎮痛의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은 現代 精神療法中에서 暗示와 類似한 것으로, 그 呪文의 내용 또한, 터무니 없거나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아니고, 그 疾患과 관련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暗示의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 그리고, 몇 가지를 除外하고는 대부분이 어린아이에게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실제 診療 狀況을 담은 醫案은 단 하나이고, 小兒에게 施行한 것이다.

이 暗示는 어린아이처럼 덜 知的이고 未熟한 사람에게 더욱 효과가 있는 것으로80), 張子和는 경험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瘡癩과 赤癩의 治療로 呪法을 사용하는 것을 할머니에게서 배운 것으로 밝힌 점으로 보아, 이러한 呪法의 사용은, 張子和가 醫理에 立脚해 論理的으로 構成하여 사용한 것이기 보다는, 既存에 있던 民間療法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5) 治療後의 調理

77) 「儒門事親」卷五. 九十七. 瘡疾不愈‘夫瘡疾連歲不愈者.....無藥處可救人’
78) 「儒門事親」卷七. 一百十. 咽中刺塞‘戴人過潞陽.....乃知法亦有不可侮者’
79) 「儒門事親」卷五. 八十五. 身瘦肌熱‘癩之疾.....晴明好日色則可矣’
80) 「東醫精神醫學」769page

《儒門事親》을 보면, 張子和는 診斷과 治療外에, 治療後의 調理에 관해서도 細心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 내용은 多樣하나, 사실 그 根本은 하나로, 火의 動搖를 막아 再發을 防止하겠다는 意圖이다. 여기서, 病의 발생은 火가 動함으로써 생긴다는 張子和의 확고한 믿음을 알 수 있다. 病後에 火의 動搖를 막기 위한 調理法은 크게 肉體的인 것과 精神的인 것으로 나뉜다. 이 점은 六禁을 설명한 句節에서 綜合的으로 드러나는데, 病後에 시원한 곳에 머물러 邪熱을 받지 않도록 하고, 患者가 하고픈 것을 하게 하여 心火를 正정시키고, 勞役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81). 특히, 精神的인 안정을 重視하여, 嗜欲과 喜怒를 調節하지 못하면 病이 再發한다고 경고를 한다82). 그리고, 心理的인 動搖 못지 않게 房事를 禁하는데83)84), 이 또한 房事가 淫火를 發生시키는 것을 염려한 것이다. 또한, 음식에 있어서도, 닭·돼지·물고기·토끼고기·술·식초 등을 禁하며, 이러한 것이 風과 熱을 발생시킨다고 하였으니85), 張子和의 病因은 火라는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알 수 있다.

《儒門事親》中에 張子和의 病後調理에 관한 細心함을 엿볼수 있는 醫案이 있다. 여기서, 각각 다른 세 집안의 하인이 病이 들었는데, 張子和가 이것을 治療할 때, 各各의 主人에게 일러서 일을 시키지 말고 調理하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한 집안의 主人은 말을 듣지 않아, 그 집 하인만 病이 낫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이 의안 하나에서, 患者를 대하는 張子和의 자상함을 볼 수 있으며, 治療 以後의 調理까지가 診療의 과정이라는 생각을 알 수 있다.

III. 結 論

81) 「儒門事親」卷一. 三. 立諸時氣解利禁忌式‘故凡有此者.....休之而勿勞’
82) 「儒門事親」卷三. 二十七. 三消之說當從火斷‘不戒嗜慾 不節喜怒 病已而復作’
83) 「儒門事親」卷二. 十四. 凡在上者皆可吐式‘心火既降.....大禁房勞、大憂、悲思’
84) 「儒門事親」卷六. 四十九. 虛勞‘子之病 不難愈 難於將護 恐愈後陰道轉茂 子必不愼’
85) 「儒門事親」卷五. 九十五. 胎瘡‘小兒并乳母 皆忌雞豬魚兔酒醋 動風發熱之物’

1. 張子和는 心理的 動搖에 의한 內火를 病因의 重要 要素로 認識하였다. 《儒門事親》에 나타난 張子和의 思想은, 거의 모든 疾患을 結論적으로 火로 보았다. 그 前段階의 原因이 무엇이든, 證狀이 發顯되는 것은 火라고 보았다. 하지만, 內傷이나 外感으로 因한 火의 발생뿐 아니고, 情志의 動搖로 發生하는 火를 認識하고, 主要 病因으로 생각하여, 診療 全過程에서 그것에 대한 주의를 主目시키고 있다.

2. 張子和는 診療에 있어서 醫療外的인 背景을 重要視 하였다. 張子和는 患者를 診療하면서, 患者에게 影響을 줄 수 있는 모든 要素에 관심을 기울였다. 社會的 分위기, 個人的 貧富貴賤, 患者의 性格까지를 모두 고려하여 各各에 따른 治療法과 方劑를 提示하여 患者의 環境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리고, 小兒의 治療에서도 그 貧富貴賤이 小兒 患者의 病情에 많은 影響을 끼친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나아가 小兒의 올바른 養育法을 提示하여 過剩保護를 삼가할 것을 提案하였다.

3. 張子和는 診療에서의 患者-醫師간의 믿음을 중요시하였다. 張子和는 醫師와 患者와의 關係에서, 醫師가 主導로 患者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기 위한 前提狀況이, 患者의 醫師에 대한 絶대적 믿음이었다. 이것은 患者와 醫師가 함께 도와 治療에 同參한다는 積極적인 개념보다는, 患者에게 수동적 위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지금의 일반적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생각이었다. 張子和는 患者에게 醫師의 治療를 의심없이 수긍하고, 지시에 철저히 따르라는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4. 張子和는 診療에 있어서 臨機應變을 重要視 하였다. 張子和는 診療에 있어서 定型화된 형태만을 고집하지 않고, 당시 상황에 따라 卽興的으로 가장 적절한 方法을 생각해내어 施行하였다. 이러한 것은 診斷과 治療의 方法적인 것뿐만 아

니고, 治療器具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醫術에 있어서는 智識도 重要하지만, 臨床에서의 創造的 思考도 重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儒門事親》에 나타난 張子和의 診療를 分析하였다. 比喩, 時代는 800年 前이지만, 그의 診療는 現代 醫學의 診療와 比較하여도 그 論理나 細心함이 뛰어남을 알 수 있다. 단지 옛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 長點과 短點을 把握하여, 우수한 點은 現代의 觀點으로 再解析하여 吸收하여야 하고, 잘못된 點은 밝혀서 現代의 醫學를 비추는 거울로 삼아야 겠다.

參考文獻

1.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東洋醫學研究所. 1984:193, 194, 219.
2. 張從正. 子和醫集. 북경:人民衛生出版社. 1994 :1, 2.
3. 蕭國綱. 儒門事親研究. 북경:中醫古籍出版社. 1998:3-9.
4. 李鳳教. 漢方診斷學. 서울:成輔社. 1984:22, 161-164.
5. 洪鍾旭. 望診과 脈診. 경기:圓一出版社. 2000: 258-265.
6. 황의원·김지혁. 東醫精神醫學. 서울:現代醫學書籍社. 1987:617.
7. 이준규. 名醫病院소프트. 서울:사계절출판사. 1993:57-63.
8. 이평숙. 精神看護學. 서울:신광출판사. 1994: 31, 32.
9. 한의부인과학 편찬위원회. 한의부인과학(下). 서울:도서출판 정담. 2001:54.